

악 세 사 리 (1)

ACCESSARY

최 경 자

악세사리라는 말은 보조역, 협조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洋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위치에 있다. 勿論 어디까지나 보조역이지 主役은 아니나 악세사리의 선택과 사용여하에 따라서 그 效果는 크다.

일찌기 우리나라에도 一般的인 구두, 양산등의 必需的인 악세사리 外에 목걸이, 귀걸이, 팔찌, 手帕지 등등의 악세사리가 있었다. 近日에 와서 特別히 이 악세사리에 對한 關心이 커진 듯 하다. 그리고 매우 一般化 된 것도 눈에 띈다. 악세사리는 단순한 부속품이라고 하기 보다는 服裝과 떼어 수 없는 연결을 가진 보조자의 역할을 한다.

긴 스커트를 입던 時代의 긴 파라솔 자루는 짧은 스커트가 流行하기 始作한 1920年代에는 짧은 파라솔 자루로 바뀌어졌다. 또 긴 드레쓰에 쓰던 넓은 푸릴의 帽子는 짧은 드레쓰가 나오자 좁은 푸림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옷과의 여러가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옷에 效果를 내는 것이 악세사리라고 하겠다.

原始時代의 衣服이 벨트로 부터 발달되었다는 글을 우리는 읽으면서 오늘의 벨트가 악세사리에 들어가는데 對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衣服이 完成된 後에 악세사리는 衣服의 부속품이 되고 그 부속품은 裝飾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다.

服裝의 악세사리에 있어 넓은 意味로는 모자 양산, 구두, 단추等等 衣服 以外의 一切와 나아가서는 심지어 이르기까지도 악세사리로 취급이 되나 좁은 意味에 있어서는 衣服의 一部分이 아니라 커거리 목거리 팔찌 等等의 것을 말 할 수 있다. 악세사리의 歷史는 길고 폭도 넓으나 其實 우리생활에 옮겨 一般化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點이 있고 또 無理로 재촉하며 옮겨야 할 必要와 效果를 의심한다.

가장 適切한 악세사리를 적절한 장소와 때와 옷에 맞추어 效果를 내야할 것이다. 그리고 우

리 몸에 익어야 할 것이다. 덮어놓고 주렁주렁 단 악세사리는 서툴러 보이고 逆效果를 내며, 악세사리에 能한 가정새가 그 사람의 敎養, 人格, 知識程度를 말한다 하면 너무 과장된 말이 될까?

이제 우리는 악세사리에 對한 常識이 높아지고 우리의 生活環境이 템포가 빠르고 水準이 높아지면 自然히 時代가 要求하는 새로운 時代에 맞는 옷이 要求된다. 世界的으로 簡便한 옷, 입기 쉽고 能率的인 옷 自然스럽고 平凡한 옷 等等의 부르짖음에 呼應하여 우리는 그를 補充하는 適切한 악세사리의 要求가 늘어간다. 또 그 악세사리도 늘 그 모양 그대로 만이 아니라 時代를 따라 變하여 가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악세사리에 對한 기대도 크다.

그러면 처음 생길 적에 약간한 악세사리의 유래라 할까 歷史라 할까 그러한 것을 몇가지 들어 보기로 한다.

勿論 악세사리에 對해서는 그다지 많은 책도 없고 여러가지로 찾아 보기도 어려우나 몇가지만 들어 보기로 한다.

★ 핸드 백 (Hand bag)

핸드 백은 글자 그대로 손 주머니라고 해서 제일 먼저 회람의 女性들이 가졌다고 傳해진다 그들의 옷은 파켓(Pocket)이 없어 손에 백을 들어 파켓 代用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주머니는 大槪 수를 놓고 金물을 달고 寶石等を 달아 아름답게 꾸미고 中央에 두줄의 끈을 끼어 들게 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 주머니와 흡사한 점을 알게된다. 그 後 中世 英國 리차—드 一世의 王妃가 허리띠의 왼쪽에 주머니를 찾다는 事實이 있다. 近日에 와서 주머니를 차지는 않으나 아직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民族衣裳에는 주머니를 차며 우리나라 民族衣裳에서도 볼 수 있다.

18세기에 핸드백이 좀 주춤하다가 19세기에

다시 많이 가지게 되었다.

더우기 스커트가 타이트(tight)하게 되니 핸드백은 더욱더 必要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적고 수놓은 아름다운 것은 夜會服用, 直線의이고 큰 것은 日常服에 그리고 어깨에 벨수 있는 줄 달린 가방은 쇼-더 백(Shoulder bag)이라하며 第二次 世界大戰時 婦人兵의 가방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핸드백의 모양이 커지고 적어지고 네모지고 길어지고 等等의 變化는 그때의 服裝의 시루넬에 영향을 받는다.

★ 팔 지

팔지라고 하면 부레스켈(Brace let)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도 있고 arm let이라는 英語로도 불리어지고 있다. 原始時代에는 조개껍질 같은 것을 利用한 악세사리를 많이 볼 수 있다. 原始人은 노는 날과 같이 衣服이 完全히 없고 거의 裸體에 가까우니 팔을 장식할 必要가 있었다.

또 한편 팔지 목걸이 허리띠 等等으로 迷信의으로 마귀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時代에 따라 옷이 간소해 지고 팔이 많이 드러날 때에는 팔지가 유행되고 긴 소매에 팔지가 必要 없을 때에는 자취를 감췄다. 近日에 와서는 婦人服에 있어 主로 액센트(accent)로 使用된다.

★ 넥크 레이스 (Neck lace)

넥크레이스는 主로 婦人들의 목 或은 앞가슴 등을 장식하는데 쓰여진다. 목걸이는 귀거리와 함께 오랜 옛부터 東西洋을 勿論하고 쓰여지고 있었다. 목에 여러 줄 감고 있었던 事實은 에질트의 피라미에서 파넬 유품에서 볼수 있다고 한다. 회람에 工藝品이 발달했다고 해도 넥크레이스는 에질트를 따르지 못했다고 한다. 그 理由로는 에질트의 婦人服에는 가슴은 내놓은 옷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現代에 와서 여러가지의 모양과 材料를 쓴 넥크레이스가 많이 나왔으나 裝飾하는데 있어서의 原理는 다름이 없다. 벤단트도 넥크레이스의 一種이다. 로켓트라고 하는것은 벤단트와 다른 점이 사진을 넣게 된 것이다.

體格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짐은 勿論이고 더

욱이 옷 모양에 左右되는 것은 이상 말한바와 같다. 색크드레쓰의 出現에 긴 넥크레이스(1미터 가까운)가 流行된 것도 一例이다.

★ 이어링 (earring)

옛날에는 한쪽 귀만을 구멍을 뚫어 金屬등으로 만들어 달았다고 전해진다. 로오마 時代부터 다이아는 마귀를 물리친다고 이어링에 많이 使用되었다.

近日에는 도자기, 프라스틱 등에 새로운 素朴한 素材가 많이 눈에 띈다.

우리는 이어링을 한쪽 잃어버리고 쓰지 못하는 例가 많다. 늘 나는 언바란스로 하나 남은 이어링은 한쪽만 다는것도 좋고 짝 잃은 이어링은 부로오차로 利用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 장 갑

防寒用으로 쓰는 장갑 外에 禮式에 없어서는 안될 물건이다. 처음 장갑이 쓰여지기는 페루사라고 보며 그것이 로오마 時代에 主로 노동자에게 많이 쓰여졌다고 한다. 처음에는 요셋날 병어리 장갑모양이었다고 하며 여름에는 베겨울에는 가죽을 썼다고 한다.

7世紀 以後에는 王侯貴族사이에 裝飾品으로 使用하기 始作하였다고 한다.

A. D 915년에 서거한 가루와스 司敎가 쓰던 장갑에는 진주 보석 등이 박혔다고 기록이 남아 있다.

오늘날의 각 손가락이 들어가는 장갑은 12세기 頃부터 流行되었다고 한다.

장갑에 香水를 特히 졌다는 말은 냄새의 방지라고 본다. 장갑은 옛부터 선물로도 많이 쓰여 졌으며 가장 존경의 의미를 갖는 同時에 가장 모욕의 의미에는 쓰여 졌다고 한다. 男子들은 正式禮服에 흰 것도 女子는 면류 장갑을 끼어왔다.

우리 나라에서 西洋式的 오늘날 같은 장갑이 끼여지기 시작한 것은 約 100年 前後로 본다. 장갑의 材料는 時代에 따라 여러가지로 變하고 있었으나 近日에 와서는 nylon 섬유가 많다.

한갓 神話를 든다면 로오마 神話의 뷔너스(Venus)가 아도니아에게 끌리어 숲속을 或은 이

리 저리로 아도니아 결을 떠나지 않았다. 한번은 흑말귀 발을 지나다 잘못하여 가시에 찢려 손을 다쳤다. 그래서 그 손에서 나온 붉은 피가 장미 꽃이되어 가시 장미의 由來가 되는 同時에 뷔너스는 다시 다른 女神들의 손 다칠것은 염려하여 손을 싸게 한것이 장갑의 시초라는 神話 한토막……,

이리하여 악세사리에 對한 由來와 傳說은 많고 그 종류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程度를 많다 그러나 以上 말한바와 같이 그 時代의 服裝에 따라서 變하고 時代文化에 따라 素材가 變하여 왔으며 使用法까지도 變하여 왔다. 앞으로는 많이 變하여 갈 것이다.

우리는 악세사리가 순전한 사치와 허영 때문

에 쓰여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우리들의 單純하고 簡素한 衣生活의 유택은 악세사리가 장식한다. 그러기에 近日의 新生活服에는 한층 더 악세사리가 必要하여 진다고 할수 있다. 우리의 衣生活은 그 때에 따르는 강조를 악세사리가 한다. 스포오티(Sporty)한 옷은 더욱 스포오티 하게 아름다운 옷은 더욱 아름답게, 귀여운 옷은 더욱 귀엽게…… 악세사리의 使命은 크다. 그 악세사리의 모양 素材가 그 時代의 時代相을 나타내며 文化程度를 말 한다면 지나친 과장이라고 만 할 수 있을까?

近日의 경향을 보면 지나치게 많이 가진 악세사리는 역효과를 낸다고 본다. 악세사리의 가짐새는 베스트웨어의 표현이다.

知性美의生活美는
女美의 날개 !

에벤다

양장점




서울 明洞 國立劇場 옆 TEL 2-8586